

아리랑 원형에서 퓨전까지... 융복합공연 열린다

‘코드 아리랑, 만개 아리랑’ 공연

25일 진도향토문화관 야외무대
진도군 주최·전남일보 주관 등
소리꾼 오단해·송소희 등 출연
현대적 재해석 젊은 그룹 눈길

아리랑을 주제로 한 융복합공연이 진도에서 펼쳐진다.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아리랑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 ‘Code 코드 아리랑, 滿開 만개 아리랑’이 오는 25일 오후 5시 진도 향토문화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이 주최하고 전남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의 원형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한 퓨전의 모습까지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공연은 2024년 진도군 보배섬 문화예술제(10월 25~27일) 첫날에 펼쳐져 전국의 민속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아리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공연은 진도 출신의 이운선 민속학자가 해설을, 소리꾼이자 연극배우 오단해와 프랑스 출신의 소리꾼 마포르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공연의 ‘1부: 원형의 아리랑, 민속의 아리랑’에는 주요 3대 아리랑 지역인 진도, 밀양, 정선에서 원로 명인명창과 보존회를 초청했다. 무대 위에서 시공간을 넘어 아리랑의 원형과 3개 지역의 명창 명인들이 만난다.

진도에서는 강송대 명창과 남도잡가 보존회, 진도 출신의 채수정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와 그의 제자 국악인 마포르가 ‘진도아리랑’의 맥을 짚는다.

밀양에서는 밀양 감내계 줄당기기 보존회의 이

용만 보유자, 신명숙 이수자 외 지계목발 장단 3인이 ‘밀양 아리랑 소리’의 뿌리를 소개한다.

정선에서는 김남기 명창과 정선아리랑보존회가 ‘정선아리랑’ 무대를 올린다. 이어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창작공연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의 하이라이트 갈라쇼가 1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2부 공연으로 이어진다.

공연의 ‘2부: 모던·크로스오버·퓨전 아리랑’에서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아리랑 감성에 대한 국악인들의 새로운 표현들을 만날 수 있다.

2부 공연은 크로스오버 퓨전 밴드 ‘두번재달’의 협연으로 시작된다. 한국의 소리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경기소리 아티스트 송소희와 국악인 오단해가 출연한다. 오단해의 소리로 ‘산아지타령’과 ‘백년의 아리랑’, 송소희의 소리로 ‘강원도아리랑’과 ‘정선아리랑’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모두 함께 부르는 곡으로 송소희의 창작곡(작사) ‘내나라 대한’을 위해 진도여성합창단이 특별찬조출연을 준비하고 있다.

2부에 출연하는 ‘소리꽃 가객단’은 진도 출신의 창작국악가 한승석 교수(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가 프로듀싱한 국악 아이돌 그룹이다. ‘소리꽃 가객단’은 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우고, 소리로서 향유자들에게 꽃이 되어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젊은 가객단을 표방한다. 여성 소리꾼들이 주축이 되어 전통 판소리와 동시대 역동적인 춤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공연의 ‘3부: 포스트모던·다원예술 아리랑’에는 전통음악에 기반한 현대 음악가 원일 예술감독(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이 ‘변화

무쌍 아리랑’ 프로젝트 그룹을 꾸려 새로운 창작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변화무쌍 아리랑’에는 그룹 ‘유희’, 비보이 ‘MB크루’, 아티스트 임용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아티스트들의 흥미진진한 융복합 창작국악무대가 기대를 모은다.

엄기숙 총괄기획감독은 “무르익는 가을 저녁, 아름다운 여행 ‘아리랑’의 본고장 진도에서 펼쳐지는 시공간 융복합 기획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아리랑의 고유한 흥·멋·끼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개관 89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개최

18일 개막작 ‘선라이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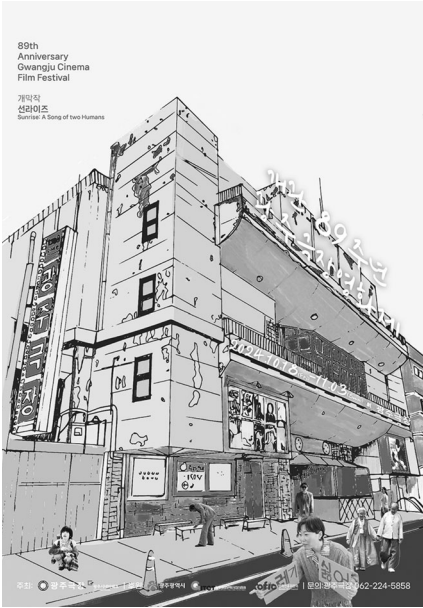
개관 89주년 광주극장 영화제가 오는 18일 막을 올린다.

올해 광주극장 영화제는 1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9기 간판학교에 참여한 15명의 관객이 40여일 간 작업한 손간판이 공개된 후 계시에 올라가는 상판식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17일간 펼쳐진다.

18일 개막작으로 무성영화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빛과 그림자의 미학을 탁월하게 보여준 독일표현주의 영화의 거장 F.W. 무르나우 ‘선라이즈’(1927)가 상영된다.

이밖에 영화제 상영작으로는 새로운 독일영화의 시대를 연 뉴저먼시네마의 ‘심장’이라 불리는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의 주요 작품 5편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1974), ‘폭스와 그의 친구들’(1975), ‘퀴스터스 부인의 천국여행’(1975), ‘중독식 물렛’(1976),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1979)이 상영된다.

동유럽 예술 영화의 진수를 보여준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트릴로지 ‘블루’(1993), ‘화이트’(1994), ‘레드’(1994)와 1996년 베니스영화제 각본상, 음악상, 미술상을 받은 아르투르 립스테인 감독의 ‘깊은 선호색’(1996), 일본 뉴제네레이션을 대표하는 미야케 쇼 감독의 ‘와일드 투어’(2019), 강유가람 감독의 신작 ‘럭키, 아파트’(2024) 등도 이번 영화제에



서 상영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14년 개봉해 다큐영화로 480만 관객 돌파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운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광주극장과 인디뮤지션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뮤지다큐 ‘버터내고 존재하기’(2023)가 각각 개봉 10주년과 1주년을 맞이해 특별 상영된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개관 90주년을 1년 앞둔 올해는 극장의 큰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등록문화재 추진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을 통해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지원이 시작되면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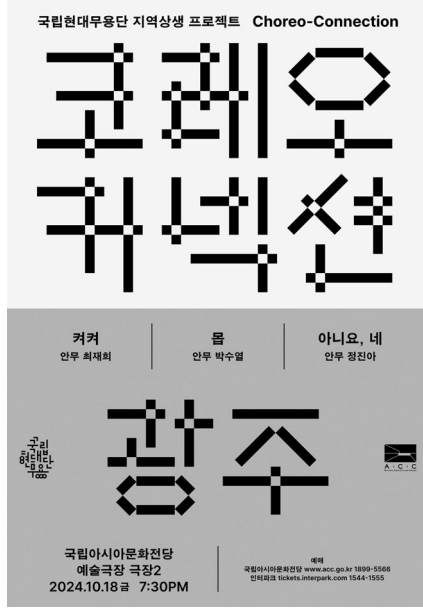
‘도시문화’ 다룬 아름다운 몸짓의 향연

18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코레오 커넥션’ 현대무용공연 ‘켜켜·몹·아니요, 네’ 3개 작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국립현대무용단의 ‘2024 지역상생 프로젝트-코레오 커넥션’을 오는 18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동시대 사회와 역사, 사람에 관한 주제를 담은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안무가 박수열, 박재현, 정진아, 최



재희 작품 4개와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

리 작품 ‘정글’과 어린이 무용 ‘얹! 얹! 얹!’이 함께한다.

ACC에서는 올해 핵심테마 ‘도시문화’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만한 작품으로 도시 속 개인적, 사회적 관계성을 담은 최재희 안무가의 ‘켜켜’, 박수열 안무가의 신작 ‘몹’과 정진아 안무가의 ‘아니요, 네’ 등 3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으로 관람연령은 7세 이상이다.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한 인터파크 예매나 인터파크 티켓(tickets.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와 국립현대무용단이 지역 안무가 작품 공모부터 본 공연까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로 의미가 깊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 안무가를 위한 무용 인프라가 점차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개최

1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임창은 상임지휘자 첫 무대

광주시립합창단은 제197회 정기연주회 ‘The KISS(더 키스)’를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임창은 제8대 상임지휘자의 취임 후 첫 무대다. 연주회의 제목인 ‘The KISS’는 프로그램의 곡 중 ‘5가지 언어의 입맞춤’에서 유래했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음악적 입맞춤을 통해 전 세계 문화를 아우

르며, 더 나아가 ‘합창’이라는 장르가 여러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입을 맞추는 듯한 조화로운 감성을 상징한다는 의미다.

현대 합창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의 1부에서는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현대 합창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2부는 사랑과 평화, 행복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협연자들의 출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적 수학 을 하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퍼커션 주자 ‘고동현’과 런던 퍼셀 음악학교,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를 졸업해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악장으로 활동하는 ‘이종만(바이올린)’, 타악기 전공으로 관현악 지휘 박사를 수료한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이현동(퍼커션)’의 탁월한 리듬감의 퍼커션 연주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임창은 합창단 지휘자는 “광주시민들이 합창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7세 이상)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